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R. E 할로우 저음 / 엄 미 정 옮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R. E 할로우 지음 / 엄 미 정 옮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傳道出版社

Can We Know God?

Korean Edition

Copyright 2015 Voice Media

info@VM1.global

Web home: www.VM1.global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 electronic, or mechanical method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cept in the case of brief quotations embodied in critical reviews and certain other noncommercial uses permitted by copyright law. For permission requests, email the publisher, addressed “Attention: Permission Coordinator,” at the address above.

This publication **may not be sold, and is for free distribution** only.

**CAN
WE
KNOW
GOD?**

BY R. E. HARLOW

**GOOD NEWS PUBLISHERS
Westchester, Illinois 60153**

차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7
하나님은 계신가? / 7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 18	
하나님 - 성부, 성자, 성령	23
성부 하나님 / 25	
그리스도 / 30	
성령 하나님 / 49	
피조물에 관하여	56
천사들에 관하여 / 56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 64	
구원의 필요성 / 68	
구원의 기초 / 75	
구원의 방법 / 81	
구원의 성질 / 86	
구원의 결과 / 91	
구원이 주는 유익 / 97	
교회	104
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	110
장차 올 세상 / 116	
부록: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가?	122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는 모르나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
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계신가?”에 대한
해답부터 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물을 둘러볼 때 우리는 “이것들이 모두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나무와 산과 호수와 동물
등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습
니다. 그분은 위대한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강한 자(The Powerful One)”를 의미합니다.

주위의 사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어떤 위대한 계획의 일부로써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였을까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내었을까요? 틀림없이 누군가 매우 현명한 분이 계획하였음
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할 만큼 현명한 인간은 아무도

8 /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무신론자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곧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이 세상의 모든 지역을 다 방문해 보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별에도 계실 수 있고 그밖의 다른 곳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같은 시간에 모든 장소에 존재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무신론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 14:1).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수천년 전에는 오직 매우 작은 물질만이 존재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점차 진화하여 어류가 되고 나중에는 동물이 되었다가 마침내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처음의 작은 물질은 어디로부터 생성되었습니까? 그것 역시 그 기원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 기초를 세우고 그것을 계속 유지시켰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고 세상을 유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계 속에 작은 부품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시계의 부품들을 컵속에 넣고 마구 흔들어서 시계를 제조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시계에 대해 잘 아는 사람만이 모든 부품들을 조립하여 시계가 작동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품들은 결코 컵 속에 넣고 흔들다고 하여 스스로 조립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놀라운 세상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다음의 4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그분은 자신을 계시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강한 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실 수 없는 것을 하는 피조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할 수 없으시다면 무엇하러 인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②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했나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시며 그분은 인간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무엇이 선이

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인간이 악을 행한 데 대해 처벌하실리는 만무합니다.

③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길 원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첫째로 그분은 인간이 선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과 의로움을 인간에게 보이기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④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나요?

만일 계시하셨다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들은 매우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에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고서들, 혹은 신간들이 많이 있으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할 서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계시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 **성경의 통일성**이 이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진정 66권의 다른 책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명의 다른 인물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들의 직업도 다양하여 국왕, 양치기, 제사장, 농부, 예언자들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그것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첫 책인 창세기가 기록된 이후 약 1500년이 흐른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66권의 책들이 오직 모두 동일하게 한 위인,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은 장차 그분이 오실 것과 그분이 구세주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은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통일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수백년 전에 기록된 고서들은**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고대의 도서들은 이제 흙더미 속에 파묻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이 오래된 흙더미를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성경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여러가지 기록들과 유물들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믿기 위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적을 본적이 없으므로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기적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분도 못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 곧 신(神)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행위를 일컬어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들은 결코 성경이 진리가 아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성경이 진정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12 /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증거합니다.

• 하나님이 자신을 성경에 계시하셨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증거는 바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할 때 그것을 가리켜 예언이라 합니다. 또한 예언된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것은 성취된 예언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오래 전에 이미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탄생하실 것인가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일들에 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서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과연 이 예언자들은 먼 후일에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 **성경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기록하신 율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여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진다면 주 예수님의 완벽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는 자신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로움에 대해 읽게되며 또한 그분이 그들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만약 성경이 오직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이라면 우리는 결코 마음의 평화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구세주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어느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의 이름답고 놀라운 계획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계획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해 줍니다.

● **또한 성경의 메시지는 진실로 역사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나 할 것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어떤 사람은 성경이 오래된 책이라 하여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좀 더 새롭고 현대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매우 특별한 책이라는 점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그토록 오랜 기간동안 파손되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오래된 책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우 인간이 그토록 없애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지켜오셨습니다. 성경은 분명코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 오늘날 성경은 어떻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만일 성경이 그토록 구태의연한 것이며, 실수투성이의 것이라고 입증되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이상 찾지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성경은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혹은 낱권 등이 1200여 언어로 번역되거나 재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90%가 이 언어들 중의 하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성경 통권 혹은 낱권들이 인쇄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책입니다. 그것은 여느 다른 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2. 성경은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임을 알았습니다. 다시말해 그분은 자신을 성경에 계시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성경 저자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만일 하나님이 말씀해주지 않으셨다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 저자가 보고 배운 바를 기록케 하셨습니다. 이 성경 저자들은 어떤 일에 대하여는 기록하되, 어떤 일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지시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오직 어떤 일에 대해서만 기록하도록 인도되었을까요? 성령은 오직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제시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하니”(딤후 3:16).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1 구약

구약에서 우리는 종종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여호수

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구약에 수천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출 3: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신 1:42).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신 4:14).

이사야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기록한 16명의 선지자 모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교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용하시어, 원하시는 바를 인간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 율법(마 5:18; 막 7:8)
- 선지자의 글(요 6:45)
- 구약(눅 16:29~31, 요 17:17)

사도들도 구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 **베드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말씀하신”(행 1:16) 것이라고 했으며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벧후 1:21) 것이라고 했습니다..
- **바울**—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행 28:25)라고 말하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딤후 3:16)이라고 했습니다.

2 신약

그리스도께서 아직 세상에 계실 때 그는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16 /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26). 그러므로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6:13).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서신서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6:13)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다른 사도들도 장래 일을 기록한 것을 보아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신약을 기록하는데 대한 원칙들을 준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신약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진정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입니다.

신약의 제자들은 그들이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고전 2:10). 바울의 서신은 주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고전 14:37).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였고(엡 3:3, 5) 성령이 그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딤후 4:1).

요한이 받아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 1절, 14장 13절, 19장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도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습니다(벧전 1:12, 갈 1:12).

이 모든 사람들은 구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신약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

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들은 구약의 말씀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신명기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두 말씀들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서 베드로는 이사야의 표현을 빌어 복음이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언자들과 나란히 명명되기도 하였습니다(벧후 3:2). 또한 바울의 편지가 “다른 성경들”과 함께 제시된 바 있습니다(벧후 3:16).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완전한(Plenary)”, 혹은 “충만한 영감(Full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각 단어들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경의 가르친 것으로 말하였다(고전 2:13)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축자(逐字) 영감(Verbal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 **성경의 저자들** : 모든 단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록된 방식을 보고 저자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록 방식은 이사야나 에스겔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 **기록된 책들** : 모세나 바울에 의해 기록된 책들이 실제로는 오래전에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대로 그 책들이 소실됨을 허락하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숭배하지 않게 하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의 기록물과 거의 정확히 똑같은 사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본들이 우리

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여지가 없습니다.

• **번역** :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데 있어서 완벽한 번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번역본은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때로 신약의 저자들은 좀 더 기록하고 싶어 했으나 성령이 이를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적당히 쓰고 더 이상 쓰지 않도록 인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게시록에서 요한은 일곱 우뢰에 대하여 더 기록하고자 하였으나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계 10:4).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해 기록하고자 하였으나 성령이 이를 막으셨습니다(히 5:11). 또한 유다는 구원에 대해 기록하고자 하였으나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격려하며 경고하는 내용의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유 3).

모든 성경저자들은 그들이 기록하고 혹은 기록하지 않은 이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에 계시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그분에 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열 두 가지의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먼저 그분의 본성을 나타내는 일곱 가지 속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다섯 가지 속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속성들

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요 4:24).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종류의 육체도 지니지 않으십니다. 때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이나 여호와와 의 눈에 대한 성구를 대하게 되나, 이는 단순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묘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이후로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지니셨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②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딤후 1:17)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을 볼 수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요 1:18).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신의 형상이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③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신 33:27, 롬 16:26).

이 말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존재하시고 언제나까지나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결코 당신 자신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시작이 없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출발시키신 것입니다.

④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시 95:3).

그분은 많은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매우 힘이 강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은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분 자신보다 더 강하게 될 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피조물이 힘을 합쳐 그분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창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결국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욥 42:2).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합니다(막 10:27).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친히 만드신 모든 사물과 존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합니다.

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시 139:1~4).

그분은 모든 것, 심지어 인간의 생각조차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⑦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분이십니다(렘 23:24).

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시며 다 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신 26:15, 시 113:5).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존재하신다고 하여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사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2.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속성들

①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행 7:2).

이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과 같습니다(요일 1:5).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을진대(요 11:7),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여 주시니 그야말로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②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삼상 15:29, 말 3:6, 히 6:18).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게 행동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말하거나 변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렘 18:8).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이 다르게 행동함에 따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③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시 7:11, 11:7, 계 16:7).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범 죄했는지에 관계없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곧 이 세상과 다른 모든 세상과 온갖 별들의 지배

22 /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자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리고 언제까지나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이까”(창 8:25).

④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사 6:3).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합 1:13).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최악된 행위를 볼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노하심이 없이는 죄를 보지 못하심을 의미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속성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출 33:19, 요일 4:8). 은혜란 우리가 받을만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친절입니다. 그것은 심판받을 자를 향해 주어지는 자비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벧전 5:10).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 자비와 사랑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그분의 모든 다른 속성이 우리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더욱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그분의 면전에서 멀리 내어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할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자(人子)’를 알게 되며 그분이 이 세상을 다녀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 성부, 성자, 성령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부와 다르긴 하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으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이 구절은 말씀이 하나님과 같지는 않으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존전에) 계셨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한 이 구절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14절에서도 말씀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과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자신의 손을 언급하시고, 이어 29절에서 아버지의 손을 언급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도께 양무리를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30절에서 예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1장에서 시편 4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아들이 하나님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그러나 9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과 같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에 관하여도 성경은 이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과 그 아들에 의해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실제 그 한 분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三位)가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것들이 진리임을 압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점을 들어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생각한다는 문제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삼위(三位)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인간적인 분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전 어떤 사람이 과학의 열 가지 신비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전기와 빛과 생명 등에 관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렇듯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들도 이해하지 못할진대, 하물며 이와 같은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놀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성경이 하나님께 대해 말씀하는 바를 이해하고 믿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움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모든 일을 더욱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1. 그분은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불리웠다.

예수께서는 종종 그의 아버지에 관해, 혹은 그의 아버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20번, 마가복음에서 2번, 누가복음에서 11번, 요한복음에서 62번, 요한계시록에서 3번 사용하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을 6번 언급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을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사용하였고, 요한도 거의 같은 말을 4번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두 번의 다른 시기에 그분은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3:17, 17:5).

이는 하나님께 아내가 있거나 아들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아들되신 그분이 영존하시며 결코 창조되지 않으셨다는 점을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이제 성경이 그분에 대해 말한 두 단어를 살펴 보겠습니다.

① 독생자(요 1:14).

이 단어는 요한복음과 그의 첫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5번 사용되었습니다.

② 먼저 나신 자(골 1:18).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로 7번 사용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대목을 제외하고,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지위상의 장자를 의미하며 시간상의 장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불리우며,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로 불리우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맏아들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이 아닌 자들에게 그 축복이 옮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셋, 이삭, 야곱, 유다, 솔로몬 등은 맏아들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맏아들”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그것은 그분의 지위를 가리키지 그분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창조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존재하신 분입니다.

2.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로 불리우셨다.

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로 불리우십니다 (눅 3:38, 행 17:29).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을 잃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말 1:6).

② 종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웠습니다(출 4:22, 신 14:1, 사 1:2).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로 불리웠습니다(대상 29:10, 사 63:16, 렘 3:19). 그러나 이는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③ 구약에서 매우 드물게 하나님은 한 개인의 아버지로 불리웠습니다. 그분은 시편 68편 5절에서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역대상 28장 6절에서는 솔로몬의 아버지로 자신을 칭하셨습니다.

④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아버지라 불리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우리로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1.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보통,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방법은 신자가 되는 모형이 됩니다.

① **출생에 의해** - 모든 자녀들은 출생에 의해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을 얻어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요 1:12, 13).

② **입양에 의해** - 여러분은 아이를 법적으로 입양시킴으로 가족

28 /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의 딸은 모세를 양자로 삼아 마치 자신의 자녀인 양 그를 길러 주었습니다. “입양”이란 말이 신약에서 사용되기는 하나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갈 4: 5, 6).

[3] **결혼에 의해**— 우리는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됩니다. 룯의 시어머니는 그녀를 “내 딸”이라고 불렀습니다(룯 3:1). 다윗의 장인은 그를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불렀습니다(삼상 24:16). 신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엡 5:25).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엡 3:15).

2.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많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므로 슬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요 20:17).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본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완벽한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모두 하늘 본향에로의 행로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요 14:2).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요 16:27). 틀림없이 그분은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실 것입니다(마 6:32, 33).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결코 장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저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요 10:29). 나는 내가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자녀에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장래에 얻을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유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롬 8:17).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에게는 이외에도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3.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에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아마도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에 빠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편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누구도 범죄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가 아버지께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족으로부터 내어 쫓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그들을 가족으로부터 내어쫓거나, 죄의 길로 계속 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11절을 읽어 보십시오. 모든 진정한 자녀는 아버지의 거룩함과 평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를 받을 때, 그는 회개 곧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하늘의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30 /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도록 놓아두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나쁜 행위로 인하여 많은 고린도인들이 잠에 빠져 실상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고전 11:30). 요한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고 하였습니다(요일 5:16).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길로 계속 행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점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 그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그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제 가장 귀중한 주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을 통해 부여되는 모든 축복들과 하나님 그분에 대해 공표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시대를 돌로 나누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그분을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얻을 모든 축복들은 십자가 상에서의 그의 죽음으로 인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8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 ① 그분의 신성(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 ② 인간이 되시기 전의 그분의 사역.
- ③ 그분의 성육신(그분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 ④ 그분의 인간성(그분은 인간과 똑같은 성향을 지니셨습니다)

- ⑤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역.
- ⑥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 ⑦ 현재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 ⑧ 그분의 두 번째 오심.

1.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것은 모든 질문 중 가장 중대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마 22:42).

만약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라면, 설사 그분이 최초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은 거짓말장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피조물의 죽음은 인간의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정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아들은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가요? 아들도 아버지처럼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는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열두 가지 단어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중 열 단어는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 처음의 두 가지, 곧 그분은 영이시라는 것과 그분은 보이지 않으신다는 점은 더 이상 아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인간이 되셨으니 신인(하나님 -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인간의 눈에 보여지셨고 더 이상 영으로만 존재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① 아들은 영존하십니다(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시작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태초가 몇천년 전이었든지에 관계없이 말씀은 그 때에도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는 “말씀”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아버지의 영화를 공유하셨었습니다(요 17:5).

② 아들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골 1:18).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막 2:5, 7).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와 같이 자신에게도 경배할 것을 허락하셨으며(마 14:33), 심지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러하셨습니다(눅 24:52).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권리를 지니셨습니다(요 5:26~29).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빌 2:10), 그분의 보좌가 영영할 것입니다(히 1:8).

③ 아들은 전능하십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아들이신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요 1:3, 골 1:16, 히 1:10).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들이신 그분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으며(막 4:39), 귀신을 다스리셨고(막 5:8), 죽음을 다스리셨습니다(막 5:41). 그분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롬 1:4).

④ 아들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요 16:30, 21:17).

그분은 인간의 생각을 아시며(마 9:4), 실제 그들과 같은 장소에 거하지 않으셨으면서도 그러하십니다(요 1:48). 그분은 장래의 되어질 일을 모두 아십니다(요 6:64, 13:3).

하나님은 되어질 일들을 모두 아시며, 되어졌던 일들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또한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잊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히 8:12).

⑤ 아들은 동시에 모든 장소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나(엡 1:20), 그분의 영은 두 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거하십니다(마 18:20). 또한 그분은 자신이 분부하신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 28:19, 20).

⑥ 아들은 자신을 계시합니다(요 2:11).

하나님은 빛이시요(요일 1:5),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요 8:12). 아들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히 1:3).

⑦ 아들은 변치 않으십니다(히 1:12).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이제껏 되어진 일 중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사 신인(하나님 -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을 때조차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멈추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격도 변치 않으셨고 변할 수 없으십니다.

⑧ 아들은 의로우십니다(딤후 4:8).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히 1:9).

⑨ 아들은 거룩하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되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백년 동안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행 4:30).

⑩ 아들은 은혜로 가득하십니다(고후 8:9).

그분은 동정심으로 마음이 동하셨습니다(마 9:36).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엡 5:25).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유 21).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은 곧 그리스도의 속성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신성한 분, 혹은 하나님과 닮으신 분이라고 일컫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본장에 나온 말씀들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심을 명시한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2. 인간이 되시기 전 아들이 하신 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결코 시작이 없으셨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과연 성경은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의 그분의 사역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분의 권능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요 1:4).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히 1:2).

게다가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히 1:3). 그분에 의해 만물이 존재하며 함께 서있는 것입니다(골 1:17).

인간이 되시기 전 아들이 하신 두 번째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일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 하나님이 바로 아들이신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때로 인간의 형상으로 때로는 천사의 형상으로, 때로는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창 12:7), 이삭에게(창 26:2), 야곱에게(창 35:9), 모세에게(출 3:2), 이스라엘에게(레 9:4), 여호수아에게(수 5:13~15), 기드온에게(삿 6:12), 사무엘에게(삼상 3:21), 다윗에게(대하 3:1), 솔로몬에게(왕상 9:2), 이사야에게(사 6:1), 에스겔에게(겔 1:28) 나타나셨음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을 통해 계시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3.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계실 온전한 권리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 계셨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셨다면, 인간은 누구도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① 성육신

앞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느 날 한 구속자, 한 왕이 오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단에게 미혹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파멸시킬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그 구속주는 여자에게서 태어날 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창 22:18). 즉 모든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구속주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에게 전수되고(창 26:4), 이어 야곱에게 전수되었습니다(창 28:14). 또한 하나님은 유다에게 왕이 그의 지파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창 49:10).

또한 하나님은 장차 오실 이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신 18:15),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시 110:4), 다윗의 위를 이을 왕(삼하 7:16)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실 구속주가 천사나 혹은 다른

존재가 아닐 것은 너무도 분명하였습니다. 그분은 인간일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 하리라 할 것이며”(사 25:9).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사 40:10).

침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사 40:3; 요 1:23)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라기는 예언하기를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3:1)라고 하였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실 왕의 이름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9:6,7).

그분의 또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분이셨습니다(사 7:14; 마 1:23).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친이 없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속된 왕과 구세주,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신약의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 이를 일컬어 성육신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음을 명백히 증거하는 말씀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롬 9:5).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전 15:47).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딤후 3:16).

또한 다음의 구절들도 참조해 보십시오(갈 4:4, 빌 2:6~8, 히 2:14).

영존하시고 창조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되셨을 때도 하나님이심을 멈추실 수도, 멈추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은 원하시기만 하면, 진정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시길 원하셨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4.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는 죄악된 본성을 지니지 않으셨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 주 예수님은 인간의 아버지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마 1:20). 탄생 이후, 그분은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 35절, 2장 5, 6, 7, 16, 21, 28절을 참조해 보십시오.

- 그분의 어린시절은 다른 아이들의 어린시절과 동일하셨습니다(눅 2:40~52). 그분은 여러 질문들도 하며, 부모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키가 자람에 따라 지체도 자라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분은 주리시고(마 4:2), 피곤하시고(요 4:6), 목마르셨습니다(요 19:28).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 즉 사랑과(막 10:21) 분노와(막 3:5) 슬픔을(눅 13:34)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큰 위협에 처하셨을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눅 4:29, 30; 요 10:31, 32).

- 그분의 죽음은, 그가 약함으로 인해 죽지 않으셨다는 점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분은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을 거두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10:17, 18).

인간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 인간과 똑같이 그분은 혼과(마 26:38), 영과(눅 23:46), 육을(요 19:40) 지니셨습니다.

① 완벽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중요한 면에서 인간과 동일하십니다.

- 죄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인격에 따라

40 /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행동하실 것이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 오직 그리스도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요 8:28, 29).
- 그분의 대적들조차 그분이 아무 잘못도 범하지 않으셨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요 8:46).
“빌라도가 가로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요 19:4, 6).
-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17:5).
게다가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완벽한 인간이심을 인정하셨음을 입증합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벧전 2:22),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고후 5:21).

②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성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간이시요, 완벽한 인간이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인간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신인(하나님-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딤후 2:5).

오직 “죄없는 인간”만이 타인들을 위해 죽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께 한 가지 죄악이라도 있었다면, 그분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완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완벽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이셨습니다.

5. 지상에서의 아들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은 신인(하나님-사람)이 되셨습니다. 지상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셨으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 그분의 권능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4복음서는 이러한 주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약 33년간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에 관하여는 이미 예언된 기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탄생으로 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오직 누가복음 2장 41~52절의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복음서들은 그분 생애의 마지막 3년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그분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더욱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① 그분의 기름부으심(마 3:13~17, 막 1:9~11, 눅 3:21, 22).

예수께서는 약 30세가 되셨을 때,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전에 회개할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는 회개할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고자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이 침례를 받았으므로 자신도 그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셨음입니다(마 3:15).

이때 누구라도 예수께서 죄를 고백하셨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42 /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것은, 즉시 하나님께서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요 3:34).

구약에서 우리는 제사장들과(출 28:41) 왕들이(삼하 2:3) 기름부으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생의 사업을 시작할 때에 기름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모두 “기름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② **그분이 당하신 시험**(마4:1~11, 눅 4:1~13).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만족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단은 예수가 대하여 죄없는 인간으로서 남아계실 수 없음을 증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가 자신을 대항할 수도 대항하시지도 않으시리라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망가뜨리기 위해 모든 술책을 다 동원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③ **그분이 행하신 이적들**

예수께서는 영의 힘으로써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며 소경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눅 4:18, 마 12:28).

그리스도는 이 이적들을,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또한 그들을 돕고자 하셨기에 행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이적들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④ 그분의 가르침

예수께서는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으나 그분의 가르침은 4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 왕국과 자신의 죽으심, 부활, 재림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매우 단순하게 설명해 주셨으나, 때로 깊은 진리들은 비유를 들어 말씀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6. 그분의 죽음과 부활

① 그분의 죽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들은 영광된 왕이 오시리라고 상상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가리키고 오히려 남을 섬기셨습니다(막 10:45).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영광된 왕으로 오실 것이나, 처음에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죄와 불신을 책망하셨으며,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를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결국 그를 대항하게 되었으며, 그분이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 번의 불법적인 공판을 받으셨으니, 한 번은 유대 장로들인 산헤드린 앞에서였고, 또 한번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이 때 그분의 친구들은 돌아났으며, 유대인들은 그를 조소했고, 군병들은 그분을 마구 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그분을 가장 슬프게 한 사실은 그분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는 외침에서 드러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고후 5:21)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만족하셨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② 그분의 부활.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그분을 사랑하던 자들은 예수님을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로마 군병들을 무덤 앞에 세워 둠으로써 제자들이 그분의 시신을 훔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군병들이 무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 날이 되자 무덤 앞의 돌이 옮기워지고 그 무덤이 비어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마리아와 몇몇 다른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열명의 제자들과, 도마와, 한 곳에 있던 500명의 성도들과, 갈릴리의 7제자들과 모든 사도들과,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보이셨습니다(고전 15:5~8).

그분의 육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육체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에 뚫린 곳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더불어 먹기도 하시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없게 하사 닫힌 문으로 통과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권능을 그분은 부활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③ 그분의 승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예수께서는 각기 다른 시간에 제자들과 약 40일 동안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과 하나님 의 왕국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하셨으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수일 내로 성령을 보내실 것과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분은 하늘로 들리워 가셨습니다.

④ 그분의 영광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으며,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요 16:28). 그분은 스스로 인간의 형상을 입으사 사망에게 굴복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빌 2:6~11). 또한 그분 을 자기의 오른 편에 앉히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엡 1:20~22).

7. 그리스도의 현재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다 견디셨을 때, 그분은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믿지 않을 경우, 그는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에 의존하고자 할 것입니다.

한편 죄인들이든 신자들이든, 그리스도께서 아직 다 이루지 않은 신 일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분의 고통은 영원히 끝났으나, 그분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해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신인(하나님-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령과 인간의 마음을 완벽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

하실 꼭 필요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의 현재의 사역을 설명해 주는 세 가지의 주된 명칭이 있으니, 그것은 중보, 제사장, 대언자입니다.

① 중보(딤후전 2:5).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설 판결자가 없음을 아쉬워하였습니다(욥 9:33).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벽한 중보이시요 중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며 더 이상 그분의 원수로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십니다(히 8:6, 9:15, 12:24). 은혜에 의해 우리는 이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중보로서, 믿음을 지닌 구원언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신인(하나님-사람)도 한분이시며, 중보도 한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다른 어떤 것, 곧 남자나 여자, 성도나 천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 한분으로서는 족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설 그 어느 누구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시며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② 제사장.

구약성경은 오실 구세주가 제사장이 되실 것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크신 제사장이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히 4:14).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를 인도합니다(히 5:12).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이루어 주십니다(히 10:19~22).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분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히 7:25).

③ 대언자.

중보로서 그리스도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는 그분은 신자들을 축복의 자리에 유지시키십니다. 그러나 죄악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대언자, 혹은 위로자로서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범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죄 없다거나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마치 변호사가 곤란에 처한 자를 도우려고 애쓰듯이, 그리스도도 범죄한 신자들을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현재의 사역을 나타내는 두 가지 명칭을 더 지니고 계십니다(벧전 2:25).

④ 목자

선한 목자로서 예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 10:11).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큰 목자이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히 13:20, 21). 머지않아 목자장으로서 그분은 자신을 충실히 섬긴 자들에게 보상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벧전 5:4).

⑤ 감독(Bishop) 되신 이

이 말은 “감독자(overseer)”의 뜻으로, 모든 신자와 교회들을 감독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충실히 섬길 것을 기대할 권리를 지니시며, 부주의한 자들에게는 문책을 가하십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아십니다(계 2,3장). 그분은 충실한 섬김에는 지금도 보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욱 더 큰 상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그분은 회개치 않는 교회에 대하여는 그 촛대를 옮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계 2:5).

8. 그분의 재림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속자,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실 한 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늘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까운 날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분의 신부인 교회는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 교회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 기쁨은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살전 4:17). 이일 후 곧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가 마련되며, 그 후 그분이 영광 중에 땅에 임하시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은 하늘 영광 중에 거하십니다. 곧 그분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마지막 장에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1. 성령의 인성과 신성

위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관한 주요 성구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성과 신성,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그분의 인성

성경에서 성령님은 성부와 같은 명칭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지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그저 선을 위한 능력이나 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령이 정말로 인성을 지니셨을까? 다음 성구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내가 보내었느니라” “내가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10:20, 13:2).

인간은 자신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성령도 그러하십니다(고전 12:11).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령도 근심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사 63:10, 엡 4:30).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 역시 그러합니다(롬 8:27). 그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니다(고전 2:10, 11).

힘 혹은 능력은 의지, 마음, 감정을 가질 수 없으며 스스로 “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름지기 성령은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그것”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② 그분의 신성

성령은 진정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에서는 천사들도 “영”이라 불리웠으며, 그 중 어떤 천사들은 “거룩한 영”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영에 불과하며, 오직 성령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지니고 계십니다.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눅 11:13) 우리에게 세 가지 사항, 곧 그분은 영이시며 거룩하시고 보이지 않으심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보이지 않으신다는 점은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내포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히 9:14). 모든 피조물이 그 시작을 지니고 있으나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히 연결됩니다(마 28:19, 고후 13:14).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등히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나와 그 아들에 의해 보내지셨습니다(요

15:26, 16:7). 그런데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독할 때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했을 때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마 12:32). 이는 성령이 성자 하나님보다 다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성령 역시 창조의 사역에 일익을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요 3:34, 마 12:28).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시편 139편 7~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죄인임을 증거하십니다(요 16:8~11).

그분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성령이라 불리우십니다(히 10:29).

이상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 열 가지가 동일하게 성령의 속성임을 보여 줍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성령은 또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 드러난 것들입니다. 또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불리우십니다(요 14:17). 그분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그분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요 16:13, 14). 또한 성령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요컨대 성령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신성을 지니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 성령의 사역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분은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결코 성부, 혹은 성자와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특히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 다음의 일곱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① 창조: 이 땅과 관련된 사역

아들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 역시 인간(욥 33:4)과, 동물(시 104:30)의 창조에 일익을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도 참여하셨습니다(창 1:2).

② 감동하심: 성경과 관련된 사역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된 것입니다(벧후 1:21).

③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광의 밀접한 관련을 보게 됩니다.

• **그리스도의 탄생** —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마 1:18, 눅 1:35).

• **그리스도의 침례** - 성령은 침례 이후, 그리스도께 와서 거함심으로 그분을 기름부으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이는 요한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을 나타냈습니다(마 3:16, 17, 막1:10, 11, 눅 3:22).

• **그리스도가 받으신 시험** -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습니다(마 4:1, 막 1:12, 눅 4:1).

• **그리스도의 사역** -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주 예수 그리스도는 3년간의 매우 바쁜 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눅 4:14, 18).

• **그리스도의 죽으심** - 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 내어 주시고, 다시 취하실 능력을 지니셨으나 그 계명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습니다(요 10:18). 그런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가 자기를 흠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음도 읽게 됩니다(히 9:14).

• **그리스도의 부활** - 사도행전 3장 15절 등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영에 의해 살리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스도의 재림** - 성령은 신부(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몹시 기다리게 만듭니다(계 22:17).

④ 세상과 관련된 사역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납득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요 16:8~11). 또한 우리가,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선택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며, 억지로 사람들로 하여금 의를 행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악한 마음에 의해 억제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거스려 말하게 함으로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릴 수가(거스려서는 안 되지만) 있습니다(행 7:51). 나아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히 10:29).

- 한편 성령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반역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는 불법한 자가 이 세상에서 옮기워질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살후 2:7).

⑤ 거듭남: 회개한 자와 관련된 사역

성령의 놀라운 사역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생명을 얻게 되면 다시는 그것을 잃지 않습니다.

⑥ 성별됨: 신자들과 관련된 사역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고 거룩하게 됩니

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한 남은 생애 동안 매일매일 거룩히 되고 성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며 (벧전 1:2),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엡 5:26).

성령은 각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사(요일 2:27)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갈 5:22).

그분은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고 (고전 12:13),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얻기 원하시며(엡 5:18),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엡 1:13).

슬픈 사실이기는 하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도 성령을 거스러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그래서는 안되지만) 있으며(엡 4:30),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전 5:19), 그러므로 교회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계 2:7, 11, 17, 29, 3:6, 13, 22).

7 교회에 관련된 사역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도 다르고 믿음도 다른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사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고전 12:12~27).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8).

이것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입니다(엡 4:3).



우리는 모든 진리가 성경에서 나옴을 앞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 가르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짐승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두 종류의 존재들을 창조하셨으니, 곧 천사들과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에 관하여

먼저 천사들에 대해, 즉 그들의 피조, 타락, 사역, 종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천사들의 피조

천사들은 어디로부터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든 천사들이 다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보다 더 명쾌

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골 1:16).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분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천사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① 천사들의 신분.

“천사”라는 말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를 뜻합니다. 천사들은 “영”이라 불리우며(히 1:14), 그 중의 어떤 것은 “거룩한 천사들”(막 8:38)이라 불리웁니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입지 않았으며 대개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눅 24:39). 때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창 19:1, 5). 그러므로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죄없이 창조된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천사들의 종류

성경에서 우리는 천사들에게도 그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 **천사장**— 그 이름은 미가엘입니다(단 10:21; 유9). 미가엘 이외에 성경에서 그 이름이 언급된 천사들로는 가브리엘(단 8:16, 눅 1:19, 26)과 루시퍼 밖에 없습니다.

- **스랍들 혹은 “창화하는 자”**— 이에 대하여는 이사야 6장에서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모시는 자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 **그룹**— 창세기 3장 24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여기서 그들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룹과 유사한 것들로는 속죄소와(출 25:18), 솔로몬 궁(왕상 6:23)과 장래의 궁(겔 41:18)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보좌들”**— 이 말은 천사들의 다른 계층을 의미합니다(롬 8:38, 엡 1:21, 3:10, 골 1:16, 2:10, 15).

• **마귀들**— 악의 영들(엡 6:12)이며, 의심할 것도 없이 지옥에 던져진 자들(벧후 2, 4)입니다. 유다는 이들 중 몇은 결박되어 흑암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6절). 마귀 혹은 악한 영들은 매우 바깥입니다. 그들은 사람 속에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마 12:43~45).

2. 천사들의 타락

이러한 악한 영들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조물 중 어떤 것은 자유 의지를 지녔으니, 천사들과 인간들은 옳고 그릇된 것을 선택하여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존재 중 어떤 것들은 그들의 자유를 창조주께 불복하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과 죄악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타락을 말씀하는 듯한 부분으로는 구약의 다음 두 구절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20절은 “바벨론 왕”(4절)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단의 타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28장 11~19절은 “두로 왕”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서는 성령이 에스겔을 통해 “두로의 군주”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11~19절은 그 보좌 배후에 있는 힘, 즉 사단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대적들 곧 바벨론과 두로는 사단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위의 두 말씀에서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결코 어느 인간에 관련하여 여러 암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 처음에는 거룩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 듯하나,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그는 루시퍼 혹은 계명성이라 불리웠습니다(사 14:12).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 높은 지위를 누렸으며,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겔 28:12~15). 루시퍼는 피조물의 일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했을 때 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사 14:13, 14)고 말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사단을 편들어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즉시 또 한 순간도 죄를 용납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심판이 아직 임하진 않았으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사 14:12, 15; 계 12:4, 9).

3. 천사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당할 결국

60 /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몇은 루시퍼에게 인도되어 하나님을 반역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모두의 하는 일과 그들이 당할 결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

성경은 사단에 대하여는 많이 언급하나 마귀들(악한 영들)과 거룩한 천사들에 대하여는 조금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단, 그 이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 **루시퍼 혹은 계명성**- 그가 타락하기 이전의 이름이었습니다. 앞에서 방금 읽은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 **뱀**-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 혹은 독사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악한 자에게 속한”(요일 3:12) 가인이 그의 동생을 살해하였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요 8:44). 뱀에게서 우리는 거짓과 미움을 보게 됩니다.

• **사단**- 이는 스가랴 3장 1절에서와 같이 대적 혹은 원수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대적입니다. 때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벧전 5:8), 때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고후 11:14),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미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 **악한 자**- 사람의 마음에 심어진 선한 씨를 빼앗으며(마 13:19), 악한 씨를 심어놓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화전은 믿음의

방패로써 능히 소멸할 수 있습니다(엡 6:16). 심지어 청년들도 그를 극복하여 자신을 해치 못하도록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요일 2:13).

• **악마**— 이 말(devil)은 누군가에 대적하여 고소하거나 고발한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사단은 네 가지 방식으로 고소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간을 고소합니다. 예를 들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며 욥의 이기심을 고소했습니다(욥 1:9). 그는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합니다(계 12:10).

그는 하나님을 하늘의 천사들 앞에 고소합니다(욥 1:10). 그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욥에게 더 친절을 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많은 천사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늘로부터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므로 공평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사단의 고소를 영원히 멸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악마는 또한 하나님을 인간에게 고소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이기적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기를 바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듯 악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시게 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생각이, 악마가 그 마음에 집어 넣은 생각입니다.

악마는 우리를 서로에게 고소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바울과

고린도인들 사이에 문제를 야기시키려 했으나 바울은 사단의 계계를 알아 차렸습니다(고후 2:11).

• **시험하는 자**(마 4:3)- 시험으로써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게 하는데 성공했는데 그것은 그들 안에 육신의 정욕(먹음직도 하고)과, 안목의 정욕(보암직도 하고)과, 이생의 자랑(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창 3:6). 이 세가지 정욕을 가리켜 요한은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요일 2:16).

아담과 하와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시험하는 자가 같은 계획을 그리스도에게 사용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눅 4:1~13). 그는 예수께 말하기를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육신의 정욕)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안목의 정욕)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생의 자랑)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자의 가장 위대한 노력은 가장 큰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 **악령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순종하는 많은 악령들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이방인의 귀신들입니다(고전 10:20). 이것들은 거짓 선지자의 영들입니다. 많은 면에서 그들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보다 월등합니다(신 13:1~3, 마 24:24, 계 13:13~15).

② 거룩한 천사들이 하는 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무슨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켰습니다(창 3:24, 사 6:2). 또한 하나님의 종들로 보내짐으로,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심판을 수행하였습니다(창 19:1, 13). 그리고 천사들은 율법을 베푸는 일도 도왔습니다(갈 3:19, 히 2:2).

현재 그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고 있습니다(히 1:14). 예를 들어,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행 5:19, 12:7).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다루심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엡 3:10, 벤전 1:12).

장래에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악한 자들에게 쏟아부으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살후 1:7, 계 8:2, 16:1).

③ 천사들의 결국

타락한 천사들 중의 몇몇은 지금도 구속된 채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모든 다른 천사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와 같이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계 12:10). 그는 오늘 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환란의 시기에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될 것입니다(계 12:9). 그는 오늘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로 하늘에 있습니다(엡 6:12).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일천 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속에 던지워질 것이며(계 20:2, 3), 그 후에 잠깐 놓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최종적인 대반란을 주도할 것이며, 그런 다음에 그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에 던지워질 것입니다. 거기서 세세토록 그는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계 20:7~10).

한편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계 21:12),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세토록 누릴 것입니다(엡 2:7).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 중 두 번째로 훌륭한 집단은 인간입니다. 먼저 천사들이 창조되었고 그들은 인간보다 더 훌륭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1. 인간의 기원

인간은 하나님이 말해 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므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❶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세상에 있는 동물과 그밖의 다른 것들과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조차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며, 무생물을 생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창조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식물 생명의 기원
- 동물 생명의 기원
- 인간 생명의 기원

석재(石材)와 식물과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하는 듯합니다.

② 인간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담이 첫 번째 진정한 인간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6~8천년 전에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만년 된 인간의 뼈나 인간이 만든 기구들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에 대하여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에도 인간과 같이 생긴 어떤 피조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영으로써 창조되었습니다. 설사 아담 이전의 피조물이 실재했다 해도 그들이 영을 지녔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만년 전의 유골들도 성경이 거짓임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2. 인간의 지위

인간은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되었고(히 2:7), 동물보다는 우위에 창조되었습니다(시 8:6~8). 그런데 인간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즉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고전 11:3). 또한 인간은 왕과 권속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벧전 2:13, 14, 롬 13:1).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로 복종케 하십니다(히 2:6~9, 계 3:14).

3. 인간의 본성

인간은 세 요소, 곧 몸과 혼과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살전 5:23).

몸은 살과 뼈와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사들은 이러한 몸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살기도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3, 요일 3:2).

인간은 또한 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마 26:38). 때로 “혼(soul)”이란 말은 인간 전체, 혹은 육체를 제외한 인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과 영이 같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인간의 영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몸과 혼은 지녔으며 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영의 일부분입니다. 동물도 징벌을 두려워할지는 모르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인간이 아는 선, 악에 따라 적용하는 내적 안내자입니다. 만일 인간이 이러한 지식을 성경에서 터득한다면, 선한 양심이 그를 놀랍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양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더이상 그에게 경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구속을 얻을 때, 그의 전 존재 곧 그의 몸과(롬 8:23),

혼과(벧전 1:9), 영이(히 12:23) 구속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나, 죄의 영향력은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제거되지 않습니다.

4.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선이나 악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해, 인간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보여진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아담은 즉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5.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인간을 죄악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마 그는 죄악에 대해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반드시 미워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악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도 인간에게 더 잘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고소는 영원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된 많은 사람들

68 /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과 더불어 영광 중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먼저 저들을 사랑하였으므로 또한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요일 4:19). 과연 당신도 그들 중의 일원이 되어있습니까?

6.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계획의 특별한 부분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드님께 영광과 영예를 돌릴 것을 원하십니다.

7. 인간의 타락

다음 장에 나오는 “죄의 기원”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필요성

이것은 성경이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여섯 항목 중 그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 다섯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원의 기초 :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 구원의 방법 :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구원의 성질 : 구원을 얻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요?

- 구원의 결과 : 구원을 얻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 구원의 유익 : 구원을 얻은 후 인간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가요?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오직 한 단어는 바로 “죄악”입니다. 만일 죄가 없었다면 구원도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경위와, 죄의 모양과, 죄의 결과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죄의 기원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죄가 하나님의 우주에 잠입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분이 죄악된 존재를 창조하셨을까요?

① 사단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그분이 자신을 미워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들이 범죄할 수 없다면, 순종 이외의 어느 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범죄와 순종 중 택일 할 수 있을 진대, 어떤 피조물은 범죄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맨처음 범죄한 것은 “루시퍼” 또는 “사단”이었습니다.

② 인간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내용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겠지만, 다음 사실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계획되어졌습니다. 인간은 이미 심겨진 나무들에서 나는 열매들을 먹을 수가 있었으며,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은 채 40일을 광야에서 지내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로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에게는 금지된 것이 오직 하나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 아담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즉 이 명령을 깨뜨리는 날,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떨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 사단이 아담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 그는 먼저 하와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녀가 의심하도록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하와는 첫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그녀는 그 나무를 “만질 수도” 없다고 사단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으면 그들은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즉시 그들이 죽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하와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와는 이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않았으므로 그 죄가 더욱 큼니다(딤후 2:14).

• 사단의 약속은 성취되었을까요? 물론 아담과 이브는 이미

선악 간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순간에 그들은 그 차이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스스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말에도 일말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선악 간의 차이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의를 행하시고 악을 행치 않으시므로 악을 모르십니다.

● 하나님의 경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먹는 날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그들은 죽었을까요?

아담은 그날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바로 이것이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몸은 하나님께의 순종을 거부한 그 날로부터 죽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2. 죄의 본성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즐거운 놀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마치 병과 같아서 그러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죄를 마음 속의 꿈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죄가 곧 불의를 행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거부하거나 망각한다면 그것 역시 죄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요일 3:4).

설사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해도 그 법을 깨뜨리면 범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이것 역시 죄입니다(약 4:17).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요일 5:17).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입니다(잠 24:9).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롬 14:23).

한 마디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죄는 “나는 내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난폭한 노예 물이꾼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요 8:34).

죄는 사람을 유혹합니다(히 3:13).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약 1:15).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렘 44:4).

그 분은 죄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십니다(시 7:11).

가장 나쁜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 곳곳에 죄의 몇 가지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악한 생각”이 첫 번째로 기재되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간음이 첫 번째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는 교만과 광패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수근수근하는 죄와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로마서 1장 29, 30절의 중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만이 가장 나쁜 죄입니다. 여호와와의 미워하시는 것 육 칠 가지 중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잠 6: 16~

19).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기에는 너무 교만하므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죄인들만 구원하십니다(눅 5:32).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과 반역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3. 죄의 영향력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이것을 일컬어 죄라 합니다. 그러면 죄는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① 하나님께 미친 영향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처벌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반역한 자를 하나님의 존전에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만약 이러한 반역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떠나야만 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인간을 쫓아내는 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끌어들이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태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가장 놀라운 계획, 곧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갔으나, 이 사실이 하나

님의 사랑과 공의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 가장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② 사단에게 미친 영향

인간의 죄로 인해 이제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적에게 그분의 불공평을 고소하게끔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소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영원히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③ 인간에게 미친 영향

죄가 인간에게 미친 첫 번째 영향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가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였으나,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숨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벗었고 또한 더이상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기에 적합치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창 3:8).

그들이 죄악을 범했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가까이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두 번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입니다(엡 2:1).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는 스스로 사단의 권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동안 종노릇합니다(히 2:14, 15).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알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사단에 의해 눈멀게 되었습니다(고후 4:4).

아담이 죄인이므로 그의 모든 후손들도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한 바에 대해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기초

하나님은 인간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 마디로, 하나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네 단어 곧 화목제, 대속, 속죄, 속량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 화목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심판자로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는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불순종한데 대해 징계할 때에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선 판사는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도 응보의 벌을 내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심판관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호의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친절히 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물을 드림으로 진노를 거두게 하심을 의미함

니다. 그런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자비로운 하나님으로서 계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10).

“우리만 위할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요일 2:2).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롬 3:25).

2. 대속

대속한다는 것은 어느 물건의 자리에 다른 물건을 갖다 놓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공의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겔 18:20).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폐기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다음의 7가지가 요구됩니다.

①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줄 대속자가 요구됩니다. 만일 없다면 범죄자 자신이 자기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하며 그를 위한 구원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② 그 대속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야 합니다. 다른 계획이 아무리 나에게 훌륭한 듯 여겨져도 그러한 것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므로 그분이 만족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③ 그 대속물은 동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인간이 되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히 10:4). 또한 천사는 순수한 영이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대속물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④ 그는 죄가 없이 순전해야 합니다. 만일 그에게 죄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 죽을 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없습니다.

⑤ 그는 기꺼이 죽고자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한 순전한 자를 억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죽게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⑥ 그는 무한한 생명을 지녀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의 죽음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만 충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생명은 생명으로”(신 19:21)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⑦ 완벽한 대속자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더욱 명백하게는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이자 인간인 한 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면, 고소자인 사단은 하나님 자신이 하지 않으시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경배와 사랑을 원하십니다(출 20:5). 사랑은 사랑을 바라는 법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한 대속자가 인간을 위해 죽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짐승의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스스로 죄를 없앨 만큼 족하지 못했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78 /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모형이 될 뿐이었습니다. 짐승이 죽었을 때 그 피가 흘려졌음을 기억하십시오.

-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벨의 양은 열납하셨으나 가인의 피없는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창 4:4, 5).
- 하나님은 이삭 대신 죽을 양을 번제로 마련하셨습니다(창 22:13).
-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수천 마리의 짐승을 드렸습니다(레 1:4).
- 대속의 진리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5절).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5절).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8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10절).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12절).
-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는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는 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고전 11:24, 막 14:24).
- 바울은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롬 5:8, 갈 3:13).
-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벧전 3:18).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곧 그들

의 유익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위해 죽으사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벽한 인간이시며, 충족된 단 한분의 대속자이십니다!

3. 속죄

구약에서 “속죄”라는 말은 종종 “덮어 가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까지는 진정한 속죄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죄가 희생제물에 의해 사해지거나 “덮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죄를 간과하셨던 것입니다(롬 3:25, 히 9:15).

“속죄하다”라는 말은 적들을 다시 친구되게 하거나, 다툼을 진정시키거나, 이전에 끼쳐진 해에 대해 보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속죄와 화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해 주셨습니다. 반면 화목은 죄인이 믿을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정이나 행복한 관계를 다시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이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롬 5:10).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인간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화목될 필요가 있으니, 곧 하나님께 대한 공포와 미움을 쫓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고후 5:18).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고후 5:19).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고후 5:20).

4. 속량

속량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사거나 혹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이 병들거나 가난하여 그 재산을 팔게 되면, 모세의 법에 따라 그들의 형제가 그것을 어느 때건 다시 사들일 권리를 가졌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레 25:23~25). 룯(룯 4:1~10)과 예레미야(렘 32:6~12)의 예도 흥미롭습니다.

신약에서 속량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① 하나는 **사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갈 3:13).

② 다른 하나는 **속전이 지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딤후 2:14). 우리는 옛 방식으로 구속된 것이 아닙니다. 곧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되었습니다(벧전 1:18, 19).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사(막 10:45),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히 9:12).

본래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죄로 인하여 다른 이, 곧 사단의 지배 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해 주셨는데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장

비싼 값으로 우리를 사셨던 것입니다(마 13:46).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고전 6:19, 20).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죽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구원 계획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요구되었으며, 동시에 완벽히 충족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말해 주는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택하심, 예정하심, 부르심, 양자 삼으심입니다. 이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를 더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택하심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 이상으로 미래의 되어질 일들을 환히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래의 되어질 일들을 지배하실까요?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아신다는 것이 곧 그것을 지배하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이미 되어진 일과 장차 되어질 일 모두를 지배하십니다. 또한 그분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각 사람에게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할 의무와 권리도 주신 것입니다.

택한다는 것은 선택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천사들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딤후 5:21).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택한 백성이라 불리웠으며(사 45:4),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롬 11:5).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불리웠습니다(사 42:1, 벰전 2:6).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택하신 자로 불리웠습니다(롬 8:33, 골 3:12).

택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을 위해 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유기(遺棄)하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구원을 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으로 영광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를 일컬어 그의 몸이요,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신부를 아름답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하심의 목적입니다.

2. 예정하심

하나님은 오래 전에 선택된 자니 미리 아셨습니다(벰전 1:2).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롬 8:29).

예정이란 미리 선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엡 1:5, 11).

그런데 택하심과 예정이 곧 인간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해명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해명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모든 이에게 전해져야 하며,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미리 계획하셨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과 권능을 명백히 증거해 줍니다.

3. 부르심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십니다(롬 8:30). 이것이 바로 복음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자신에게로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나, 다른 이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으로 믿어 집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는 모두 그에게 갈 것이며, 그분은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요 6:37, 44).

택하심은 어느 사람이 부르심을 입기 전에 먼저 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자보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더 많습니다.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4).

4. 양자 삼으심

하나님의 또다른 사역은 우리를 예정하사 양자들을 삼으시는 것입니다(엡 1:5). 성경에서 이 말은 사람을 아들로 선언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순간에 아들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들이라는” 그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자의 몸을 받았으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롬 8:15, 23).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사 우리 몸이 구속되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양자됨의 증거가 있습니다(롬 9:4). 이러한 양자 삼음은 성부와(엡 1:5), 성자와(갈 4:5), 성령의(롬 8:15) 사역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자유로이 죄인들에게 제공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정하심은 전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회개는 선한 행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선한 행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5. 회개

구약에서 회개는 자신의 행한 바에 대한 슬퍼함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마음을 변화시킴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내용을 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다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죄에 대해**— 나는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증오임을 압니다.
- **하나님께 대해**— 나는 그분이 친구이심을 깨닫습니다.
- **그리스도에 대해**— 나는 그분이 심히 사랑스럽고 만인에

뛰어나시다는 점을 깨닫습니다(아 5:10, 16).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행 17:30).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십니다(행 11:18).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롬 2:4).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십니다(눅 5:32).

회개는 우리를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인도합니다.

- 죄사함(눅 24:47, 행 5:31)
- 합당한 열매(눅 3:8)
- 침례(눅 3:3).

6. 믿음

믿음이란 어떤 사람의 말하는 바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을 알리셨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믿는 자는 믿음을 지닌 자입니다.

믿음이란 또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부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유 3).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 읽게 됩니다(롬 3:3).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되,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진리이며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그분께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행실과 행위는 그가 진정한 믿음을 지녔는지의 여부를

나타냅니다. 어떤 것이 진리임을 그저 마음에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악마도 하나님이 한분이심을 믿고 두려워했으나 이 사실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을 지닌 자는 결단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약 2:14~26).

택하심, 예정하심, 부르심, 양자 삼으심 모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은 역할은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성질

하나님은 스스로 큰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 구원을 회개와 믿음에 의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다음의 네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 줍니다.

1. 죄사함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남들의 죄처럼 악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께 죄사함을 받는 일이 훨씬 나은 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

죄는 하나님께 대한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

사랑, 순종을 빚졌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갚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나오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께 일만 달란트를 빚졌으나 갚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전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관으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죄를 사하지 않으며 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 빛이 치러졌으므로 죄를 사하시고 또한 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모두 갚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을 모두 아실 수 있는 한편 이미 되어진 일을 모두 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히 8:12).

죄사함을 받은 죄인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마 9:2).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롬 4:7).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다른 이유로 인해 사해 주십니다. 내가 계속 죄의 길로 행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죄악에 빠지게 되면, 나는 기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백할 때에 죄를 사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만일 다른 그리스도인, 곧 주 안에서 형제된 자가 내게 대하여 범죄하면, 나는 주께 용서를 받았으므로 나도 또한 그를 용서합니다(엡 4:32, 골 3:13). 나는 그가 그 죄에 대해

보상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용서를 얻으려면 내 형제를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마 6:14, 15, 18:35).

2. 의롭다 하심

죄사함은 구약에서 많이 언급되었으나 의롭다 하심은 거의 신약에서 바울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면, 죄로 인해 켜던 빛들이 말소됩니다. 반면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여러 번 죄사함을 받아야 했으나, 신약에서는 오직 한 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는 두번 다시 의롭다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① 그것은 의로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지언정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② 그것은 의롭게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습니다(눅 7:29, 롬 3:4). 그러나 그분은 항상 의로우시므로 의롭게 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③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그는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법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가 없으므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고후 5:21), 이는

그가 죄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를 더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롬 8:33).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심은 다음에 의해 되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은혜로(3:24).
- **의의 한 행동으로**(5:18, 19)-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순종으로.
- **피로 인하여**(5:9)-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 **부활에 의해**(4:25)-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으셨음을 증거하는 부활로
- **믿음으로**(5:7)- 인간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였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또한 행함으로 얻게 됩니다(약 2:21, 25). 이는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증거함을 의미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그 마음에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롬 5:1).

3. 화목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인간을 사랑하였으나, 인간은 이를 알지 못하므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미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90 /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갈보리에서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인간은 더 이상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즉 그는 그분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롬 5:10).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화목케 하사”(골 1:21, 22).

4. 거듭남

우리는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를 또한 죽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영적 죽음이라 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녔던 생명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생명은 이 땅에는 적합하나 하늘에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요 3:3).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요 3:5, 벰전 1:23).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 ① 혈통으로(부모가 그리스도인이므로)
- ② 육신의 의지(스스로 거듭나겠다고 결심함으로)

[3] 인간의 의지(다른 사람의 도움 혹은 기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요 1:12, 13).

거듭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고후 5:17). 나는 새사람을 입게 됩니다(골 3:10). 나는 이제 새로운 생을 걸어야 하며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그분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롬 8:17, 갈 4:7).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불순종할 때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이가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아들들만 징계하십니다(히 12:6).

구원의 결과

“구원된”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 제공하시는 여러가지 놀라운 것들을 내포합니다. 그 중 어떤 것은 이미 지나간 일로써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은 현재의 일로서 날마다 진행됩니다(벧전 1:9). 또한 어떤 것은 장래에 올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벧전 1:5).

본장과 다음 장에서는 현재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 장에서는 장차 나타날 구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화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성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므로, 그 말은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혹은 성도로 만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다 성도들입니다(롬 1:7). 그들은 거룩하게 되었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로 성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또한 매일 진행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히 2:11).

성화란 현재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며(고전 6:11),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실 때까지 계속될 일입니다(엡 5:26, 27).

1. 승리

과거의 구원은 나를 “죄의 징벌”로 부터 구원하였습니다.

현재의 구원은 나를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장래의 구원은 나를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함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세 가지 적을 대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세상과 육신과 악마(엡 2:2,3)입니다. 이 세 가지가 믿는 자를 죄악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육신은 자연적 인간의 죄에 대한 소욕입니다(갈 5:17). 인간은 거듭난 후에도 세상에 남아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육신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전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따라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롬 7:5, 벰전 2:11).

세상 또한 신자들에게 있어서 적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날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 특히 젊은이들은 친구들의 행동을 좇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악한 본으로써 신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벰전 4:4).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을 타함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의 주된 일은 신자들을 범죄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면 바로 자신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 종교를 퍼뜨리기에 바쁩니다. 그는 자기의 뜻을 행할 악령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의 주된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인간의 마음에 악한 생각과 의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신자는 어떻게 이처럼 힘센 대적을 만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일 2:15, 골 3:2).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②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으므로 (갈 5:24),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롬 13:14).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갈 5:16).

③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피할 것입니다(약 4:7).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눅 10:18). 사단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히 2:14).

2. 열매

만일 어느 사람이 매일매일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대해 승리한다

면 이는 그가 진정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거듭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매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란 무엇일까요?

① 선한 행실이 열매라 불리웁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그 열매로써 거짓 신자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마 7:16).

②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얻습니다(갈 5:22, 23).

③ 바울은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골 1:6). 그는 다른 곳에서도 같이 로마에도 가서 열매를 맺고자 하였습니다(롬 1:13).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그분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요 15:5, 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그리스도인)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케 하셔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포도나무로부터 옮기워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일

신자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사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버지께 수치를 안겨 드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고전 11:30).

3. 확신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화평입니다(갈 5:22). 그런데 만일 내가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면 어찌 화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사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위대한 결과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확신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구원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사역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나의 구원이 나의 사역에 달려 있다면, 나는 결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행해 주셨으므로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최악된 불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함이라”
(요일 5:13).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는 온전히 영원에 대해 안전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읽고 믿음으로, 마음에 화평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진정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계속

하여 걱정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자신을 위한 것이요,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신자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기 뜻대로 행동해도 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자들도 잃어버린 바 되리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3).

이 말씀은 대환란 때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죄의 유희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②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

이 말씀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바로 다음 절(13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히 6:4~6).

이는 자신들의 옛 신앙으로 되돌아간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만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죄악에 빠지면 더 이상 주를 좇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④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그런데 죄악에 빠짐으로 내가 내 자신을 그분에게서 빼앗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사 죄악에 빠진다 해도 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데 이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버리우지 아니 하리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자는 온전히 안전함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구원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26).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4:30).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골 2:2).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확신하노라”(딤후 1:12).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25).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요일 3:2).

내가 구원받기 위해 일해야 한다거나 스스로 구원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들께서는 “구원하기에 능한 자”(사 63:1)이시며, “능히 너희를 보호하실 자”(유 24) 이십니다.

구원이 주는 유익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로 화목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히10:19~22).

1. 기도

기도는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소중한 유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도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도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이것을 실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음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마 7:7, 8).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4).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요 16:23).

② 위의 놀라운 말씀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칙은 첫 번째 법칙을 한정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에 근거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그분의 지혜와 거룩함과 더불어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은 오직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돌이나
뱀을 주지 아니하시리라”(마 7:9~11).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
라”(요 14:13).

만일 내 기도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구한다면 아들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나는 내게 기쁨을 가져다 줄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게 기쁨을 가져다 줄
어떤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큰 문제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까?”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
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두 법칙이 그 이유를
밝혀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
다.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또한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를 구하
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셨습니다(신 3:23~26).

다윗은 그의 아이가 살아나기를 구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거절
하셨습니다(삼하 12:16~19).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서 떠나기를 간구하였으나 하나님
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고후 12:8, 9).

때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나중에 해 주심으로 즉시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한 회당장은 그의 딸이 고침받기를 기도하였으나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막 5:23, 35~42).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오라비가 병들었음을 주께 고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후에 도착하셨으나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요 11:3, 14, 44).

기도에는 큰 위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기도하신 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내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불평하고 고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되 또한 징벌을 가하셨습니다(시 106:15).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자 그분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막 5:17).

기도는 놀라운 유익이 되나, 조심스럽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고개숙일 때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물어 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마 20:32).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마 9:28).

기도의 두 법칙은 야고보서의 다음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약 4:2).

- ②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약 4:3).

2. 예배

왜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예의 약속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배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기도의 응답에 감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기도보다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우리에게 예배의 주제를 안겨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엡 1:12).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경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보다 더욱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무엇이라 교훈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주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장소나 건물에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21절).

②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는 영으로서 예배드려야 합니다(24절, 빌 3:3). 외적인 종교형식은 예배가 아닙니다.

③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24절). 어떤 사람들은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러한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마 15:19).

④ 예배는 아버지께 중요합니다. 그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23절).

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들만이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요 14:6).

성도들이나 진실된 신자들이 주를 기념하기 위해 모일 때 그들은 실제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엡 1:3)입니다.

불신자의 죄악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롬 1:21). 그러나 모든 사람에 대한 그분의 축복은 명백히 나타났습니다(행 14:17, 17:25).

찬양은 감사의 생각을 내포하나 그것보다 더욱 큼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그분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모든 놀라우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 또한 그분 자신에 대해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그분 자신에 대한 찬양이 더욱 중요한데,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선물보다 더욱 크시기 때문입니다.

경배는 그분 자신에 대한 찬양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또는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무릎꿇거나 하는 등의 행동 없이도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분에 대한 가득한 사랑과 그분의 놀라우심에 대한 깊은 생각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제는 모든 것보다도 큼니다. 교제는 또한 함께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바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나 또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감사치 않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함을 입은 아홉 문둥병자가 주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아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눅 17:17).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감사보다도 더욱 큰 것, 곧 예배, 경배, 교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심령에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토록 다른 교회가 많은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보았습니다. 이제 교회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음에 동감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종류의 교회를 세웠던가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오늘날 세우는 일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에 나타난 모습을 따라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이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1. 교회란 무엇인가?

신약에서 교회로 번역된 단어는 “불러낸 무리(called-out group)” 혹은 “모임(assembly)”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오순절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에 있었던 모든 진정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웁니다 (엡 1:22, 23).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각 지체들이며(고전 12:12, 13). 각 지체는 해야 할 중요한 직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건물과 같습니다(엡 2:20~22). 그리스도는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신자들의 내부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와도 같습니다(엡 5:25~27).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크신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제 어느 날 그분이 오시면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한 장소에 있는 신자들의 무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고전 1:2).

그곳엔 두 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 18:20).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 지역교회(한 장소에 있는 신자들)는 전체 교회(the whole church)의 좋은 모양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전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교회의 신자들은 그분께 상석을 드러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전체교

회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함께 모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성경에 없는 교훈을 가르치거나 죄악된 삶을 산다면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의 성도들이 죄악에 거하거나 거짓 교훈을 받아들일 때 깊이 슬퍼하십니다.

2. 교회의 주된 활동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전도할 수 있으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모여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은 명백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히 10:25).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행 2:42).

1 가르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딤후 3:15). 하나님은 이것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요 17:17). 성경은 또한 능히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웁니다(행 20:32).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도와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교회의 모임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임에는 가르치는 자들이 몇 있을 것이나 그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완벽한 질서를 이루어야 합니다(26절).

② 성찬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기 전, 자신을 기념하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즉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잊혀지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의 몸을 의미하며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벧전 2:5, 9).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 수 있게 되었습니다(히 10:19~22).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 우리의 몸(롬 12:1)
- 우리의 찬미(히 13:15)
- 우리의 은사(히 13:16)
- 우리의 재물(빌 4:18)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가장 좋은 시간은 주님을 기념할 떡과 잔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이는 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주님을 기념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은 매주 첫날에 모인 듯 합니다(행 20:7), 또한 성도들의 연보도 매주 첫 날에 이루어졌습니다(고전 16:2).

③ 기도

두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 대하여는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마 18:19).

④ 교회의 공제

이것에 관하여는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3. 교회의 성경적 질서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과 온 세상이 질서를 나타냅니다(고전 14:33).

교회에도 역시 질서 곧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계획은 신약에서만 발견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빌 1:1). 이때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감독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날에는 몇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한 교회 안에 몇 명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들은 또한 장로라고도 불리웁니다(딤후 1:5, 7). 디모데전서 3장 1~7절과 디도서 1장 7~9절에서 우리는 장로의 자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의 가장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양떼들 곧 교회 안의 신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목장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보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벧전 5:4). 한편 신자들은 감독들을 기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히 13:7, 17).

집사란 종을 의미합니다. 집사들은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주일학교 인도자 등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집사들에게도 장로들과 거의 비슷한 만큼의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딤후 3:8~13). 사도 행전 6장에서 집사들은 재정 문제를 돌보기 위해 교회에 의해 선출되나 장로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 주님께 의해 선출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에게 여러 은사, 곧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주십니다(엡 4:11).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엡 4:12).

이러한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전체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배 아래 일단의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말씀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란 말은 그리스도의 전체 몸, 혹은 어느 지역에 있는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각 교회들은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보고 드려야 합니다. 교회들 사이에 친교는 있을지언정 그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를 지배하여 그곳의 신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

우리는 구원이 커다란 역사임을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은 지금 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다 해도, 나는 오늘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온 성도들도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질적인 본능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구절은 그분이 수난당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예를 들면 시편 22편과 69편이 그것입니다. 또한 시편 2편과 72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진리가 될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벧전 1:10, 11). 이에 대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난을 당하셨고, 이제 다시 영광 중에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요 14:3)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관하여 어떤 예언자는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시리라고 말했습니다(미 5:2). 또한 어떤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눅 9:9).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어린 아기로써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마 2:1), 그로부터 삼십년 후 왕으로서 만민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마 21:1~11).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어떤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오시리라고 되어 있고(요 14:3, 살전 4:13~17), 다른 말씀에는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살전 3:13).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또한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오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의 두 부분 간에는 30년의 간격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오신” 몇 년 후에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1. 휴거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데려 가시기 위해 “성도들에게 오실” 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이를 휴거라고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살전 4:17).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 중의 오심과 같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오시리라는 말씀을 자주 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휴거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고전 15:51). 비밀은 미리 알려지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바울에게 이 진리를 알려 주셨습니다(살전 4:15). 그러므로 휴거는 구약에서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첫 번째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 51

~5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 ②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 ③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하여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 ④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 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즐겁고 놀라우며 복스러운 소망이 됩니다(딤후 2:13). 그러나 우리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됩니다(롬 14:12).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고후 5:10).

그러나 성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받으리라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성경은 명백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모든 일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공력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력은 왜 불에 타야만 할까요? 그것은 훌륭한 업적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그 공력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그 공력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구원될 것입니다(고전 3:13~15). 한편 면류관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구주의 발 앞에 던질 것입니다(계 4:10).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읽게 됩니다(계 19:1~8). 이 때는 구원자나 구원을 받은 자 모두에게 지극한 즐거움의 때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2. 대환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어왔습니다. 땅은 지진으로 흔들렸고, 폭풍이 세상을 휩쓸었으며, 기근과 질병이 도처에 흩어져 있고, 전쟁은 역사상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계 7:14).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29절에서 이를 대할 수 있는데, 21절을 보면 이것이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6~18장에서는 대환란의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커다란 고통을 맞볼 것입니다. 아마 이 대환란은 먼저,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는 충실한 유대인에게 임할 것이며, 다음으로 모든 유대인에게 확대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그분의 이들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과거에도 종종 그러했듯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방 족속들은 크게 강성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이들에게도 퍼부으실 것입니다.

이 고통으로 인해 사람들은 회개할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나(계 6:15~17), 다음에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계 9:20, 21; 16:9, 11).

아마도 대환란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자비로우셨으나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혹자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들의 죄를 벌하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차리고 그분께 돌아와 회개할 것이다”라고 말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완전히 보이실지라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이 이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대환란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하늘나라로 옮기워진 이후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시기 이전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계 3:10).

대환란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그것은 그리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 24:22). 선지자 다니엘은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단 9:27). 처음 삼년 반 동안은 비교적 조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삼년 반 동안에는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에 진정한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할 것입니다.

3. 재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때 대환란은 순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29, 30).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오래 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를 거절한 사실을 기억하고 슬픔으로 가득

할 것입니다(슥 12:10).

그리고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마 25:31~46).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을 도움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이방 민족들은 그리스도의 지상왕국에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민족들은 영원한 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다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상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언제나 이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러한 멸시로 인해 그들은 더욱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벧후 3:3, 4).

어떤 자들은 다음의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오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영혼에 오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② 어떤 자들은 교회로 대환란을 겪게 하여 그 죄를 깨끗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의 죄로 인하여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할 뿐입니다. 반면 대환란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벌하시는 것입니다.

■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은 일부 교회가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의 몸의 일부는 하늘나라의 기쁨 속에,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땅의 수난 속에 있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있기 전에는 만족해 하지 않으십니다.

④ 어떤 자들은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냐고 묻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인자께서도 그 날과 시간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막 13:32).

진정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범사에 행하는 일들을 조심하게 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장차 올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지나온 황금시대와 다가올 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들은 모든 이들이 축복받을 멋진 시대를 이야기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 그 아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금시대”는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입니다.

1.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천년동안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천년왕국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받았습니다(창 3:17, 18). 땅은 더 이상 동산이 아니며 못생기고 쓸모없는 식물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산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계 2:7). 이제 사막에서 꽃이 필 것이며(사 35:1), 짐승들은 더 이상 다른 짐승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사 65:25), 모든 피조물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롬 8:19~22).

② 세상의 민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풍족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평화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사 9:7). 평화로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돈이 경찰과 군대를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면류관을 쓰시는 날, 이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거짓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은 엄청난 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 19장에서 우리는 이 또한 없어져 버릴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병에 걸리거나 죽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매우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사 65:20). 그곳에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의 살 것이며,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풍족히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 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다시 한 번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의를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사 11:4, 5). 사단은

천년동안 묶여있을 것입니다(계 20:2).

③ 이스라엘은 세계를 지도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사 60 : 12). 이러한 지위는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마 19:28).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데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들은 보다 덜 중요한 직무를 맡을 것입니다(눅 19:17, 19).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배척받으실 때 그분께 충실했던 유대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가 가는 곳은 어디에나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바는 그분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요 14:3).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놀랍게 되리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까요? 분명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강제로 복종하게 될 것이나, 기회만 있으면 주님을 반역하려 들 것입니다.

천년이 다 될 무렵, 사단은 잠시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와 같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규합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 대해 마지막 한 번의 공격을 감행할 것이나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불못에 던져워질 것입니다(계 20:7~10).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부활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는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는 악한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요 5 : 28, 29). 성도들만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고전 15:22).

흰 보좌 앞에서 생명책이 열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보좌 위에 앉아계실 것입니다(요 5:22). 그는 모든 것을 아시며 공평히 심판 하십니다. 신인(하나님-사람)이신 그분은 인간의 문제점과 나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계 20:11~15). 그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에 던지워질 것입니다(마 25:14).

지옥은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요? 주 예수께서는 버리워진 자들이 겪을 처참한 고통, 즉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악한 자들을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벌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유 13). 우리가 지옥에 관해 아는 유일한 것은 지옥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하늘나라가 있도다!”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는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곳에는 빛과 생명과 사랑과 영광이 있습니다(계 21:22~22:5).

2. 영원함

시간은 산 속 깊이 숨어있는 작은 돌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측량할 수 없는 기간 즉 영원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이상 측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시 90:2).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의 끊임없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세대의 세대”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는 그것의 끝이 없음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로써 이를 멸하시고 새땅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벧후 3:10 ~ 13). 그분은 또한 새하늘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전 것이 다시 기억되지 않으리라고 했으며(사 65:17), 요한은 새하늘과 새땅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계 21:1). 그 새땅에는 의로움이 거할 것입니다(벧후 3:13).

역사시대 동안,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를 보게 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엡 2:7). 그때에는 성경과 역사와 자연의 모든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인간도 지금처럼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악한 의지가 사라질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의 징벌,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계 14:11, 15:7). 슬픈 사실이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가?

- 윌리엄 맥도날드 -

당신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아래에서 그 항목을 찾아 ○ 표 하십시오

- (1)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
- (2)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 (3)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된다.
- (4) 선한 생활이나 선한 사업을 하면 된다.
- (5) 황금율(黃金律)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
- (6) 십일조나 교회에 연보를 잘 하면 된다.
- (7)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인 명부에 등록하면 된다.
- (8) 기도나 금식을 하면 된다.
- (9) 세례(침례)를 받거나 성찬식에 참석하면 된다.
- (10)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된다.
- (11) 학습(學習)이나 견신례를 받으면 된다.
- (12) 고행(苦行)을 하면 된다.
- (13) 임종 도유식(죽어갈 때 기름을 바르는 식)을 행하면 된다.
- (14) 경건하게 종교생활을 하면 된다.

• 다음 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발견)해 보십시오.

□ 1번과 같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 도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行爲)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로마서 3장 20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갈라디아서 3장 11절)

□ 2, 3, 4번과 같이 구제 사업이나 최선의 노력이나 선한 생활을 의지하고 낙관하신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디도서 3장 5절).

□ 5, 6번과 같이 황금율을 순종하느라 애쓰고 십일조를 비롯하여 연보를 잘했는지라도 당신은 결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에베소서 2장 8~9절)

□ 7, 8번과 같이 교인이 되고 부지런히 집회나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금식할찌라도 여전히 당신은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선하고 그대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있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이사야 64장 6절).

□ 9번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오류와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세례(침례)와 만찬은 이미 구원받은 참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사도행전 2장 41 절 / 고린도전서 11장 23~32절).

이 의식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뜻하신 것도 아닙니다.

□ 10번과 같이 그릇된 소망으로 당신의 영혼을 안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니라”(요한복음 1장 12, 13절)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는 뜻은 믿음은 부모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구원받기 위해선 하나님께로 나아합니다.

□ 11, 12, 13번과 같이 학습이나 고행을 한다고 해서, 또는 임종하기 직전에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만 사람들의 고안에 불과하며 또 이것들을 의지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낙관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 14번과 같이 유교든, 불교이든 어느 종교이든 성실하게 믿는다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언 4장 12절 / 16장 25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앞에 열거한 어떤 방법으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불가피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려는 당신의 시도는 실패하고야 말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대단히 분명한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자신 어느 경우에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죽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구주께서 죽으셔야 할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셨을 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두는 다만 우리가 구주의 필요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사도 행전 16장 31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요한복음 3장 36절).

요약해서 사람은 죄인이며 소위 선행이나 선한 성품이나 개인적 노력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일에 달려있습니다.

죄인이 구주를 의지할 때에 그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약속의 하늘나라가 보증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당신은 지금껏 의지하고 있던 죽은 행실을 버리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하늘나라의 소망의 터전을 두시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앞에서 열거한 일들을 의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없이 지옥으로 갈 것임에 틀림없으며 영원한 멸망 중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지혜롭게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에 기록된 말씀을 당신의 결정과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은 나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용으로 쓴 책

당신께서 꼭 아셔야 될 말씀 편집부 엮음 / 16면 / 값 100원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주 편집부 엮음 / 16면 / 값 100원
두 길과 두 운명 칼럼 베이커 지음 / 16면 / 값 100원
생명을 위한 생명 편집부 엮음 / 36면 / 값 200원
구원의 안전 확인 기쁨 조지 커틀 지음 / 36면 / 값 200원
어떻게 거듭날까? 이 춘원 지음 / 36면 / 값 200원
침된 구원이란? 올렉산더 마샬 지음 / 36면 / 값 300원
믿는 자의 영원한 안전 H. A. 아이언 사이드 지음 / 52면 / 값 500원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율리앙 맥도널드 지음 / 64면 / 값 600원
영혼의 해답 김 중만 지음 / 72면 / 600원
복음에 관한 오해를 올버트 호오른 지음 / 36면 / 값 300원
단 한 번 뿐인 인생 율리앙 맥도널드 지음 / 96면 / 값 1,000원
용서와 자유 율리앙 맥도널드 지음 / 96면 / 값 1,000원
크히 값진 진주 (만화) 이승희 글·그림 / 48면 / 값 500원
발라도의 보고서 (만화) 이승희 글·그림 / 48면 / 값 500원
영원을 계산하는 삶 율리앙 맥도널드 지음 / 36면 / 값 200원
그리스도인과 고난 컬투르드 할로우 지음 / 36면 / 값 300원
그리스도인의 소망 올랭클린 퍼거슨 지음 / 44면 / 값 400원
그리스도인과 재물 율리앙 맥도널드 지음 / 52면 / 값 500원
희복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율리앙 맥도널드 지음 / 52면 / 값 500원
또 다른 소년 J.C. 브랑ഫ로드 지음 / 96면 / 값 1,000원

경거하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

인용의 근본진리들 존 리치 지음 / 128면 / 값 1,600원
주 예수님의 재림 존 리치 지음 / 128면 / 값 1,600원
애급에서 가나안까지 존 리치 지음 / 128면 / 값 1,600원
관아의 성막 존 리치 지음 / 128면 / 값 1,600원
여호와의 7 절기 존 리치 지음 / 96면 / 값 1,200원
그리스도인의 모임 - 교회 J. R. 리틀 프리우드 지음 / 196면 / 값 1,900원
그리스도인의 내면생활 C. I. 스코필드 지음 / 96면 / 값 1,000원
그리스도인의 성장지침 율리앙 맥도널드 지음 / 96면 / 값 1,000원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칼 노트2세, 율리앙 맥도널드 공저 / 96면 / 값 1,000원
신약의 비밀스런 교훈들 T. 에니스트 윌슨 지음 / 128면 / 값 1,500원
메시야시편 T. 에니스트 윌슨 지음 / 204면 / 값 2,800원
새로운 삶 존 율리앙 브랑클 지음 / 116면 / 값 1,400원
성서의 샐터 (전 4 권) 율리앙 로저스 지음 / 권당 1,100원
황금의 집 - 성막 J. 로우 지음 / 값 1,500원
나를 먼저? 테이버드 롱 지음 / 96면 / 값 1,000원
바울과의 항해 H. A. 아이언 사이드 지음 / 값 1,000원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M. 모리스 지음 / 320면 / 값 3,800원
설교자와 그의 설교 알프레드 킷스 지음 / 464면 / 값 7,000원
리추린 교회사 A. E. 호오른 지음 / 96면 / 값 1,000원
성령님의 역사 에니스트 팀프 지음 / 96면 / 값 1,400원
사하리의 시내들 찰스 알 마쉬 지음 / 256면 / 값 2,500원
작은 여인 클레디스 아일워드 지음 / 152면 / 값 1,500원
시베리아의 불꽃 올리브사 퍼버 / 96면 / 값 1,000원
햇빛나라 크리스티나로이 지음 / 160면 / 값 1,500원
복 치는 소년병 M. L. 로스발리 지음 / 64면 / 값 700원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율리앙 윌리엄즈 지음 / 104면 / 값 1,200원
만일 나에게 동전 한 푼만 있다면... H. Wayne Kiser 엮음 / 96면 / 값 1,200원

진도를판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는 영혼들과 주님만을 생각하는 성도들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 발행일 : 1990년 3월 26일 초판발행
1994년 2월 25일 2 판발행
- 지은이 : R. E. 할로우
- 옮긴이 : 엄 미 정
- 발행인 : 이 치 일 (E. Ritchie)
- 발행소 : 전도출판사 (등록 No. 4-41호)
- 연락처 : 서울·성동 우체국 사서함 80호
- 전 화 : (02) 295-2737
- F A X : (02) 298-4520
- 우편대체 : 011056-31-2297307

값 1,800원

※ 과분은 교환해 드립니다.

ISBN 89-7531-726-9 03230

